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 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정선희**

<차 례>

1. 머리말
2. 대학 교양교육의 흐름과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
3.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의 활용방안
 - 1)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의 제재 - 고전소설 읽기와 글쓰기
 - 2) 한국문학의 전통과 통시성 교육의 제재 - 고전소설로 삶 읽기
 - 3) 현대문학과 문화예술 작품 창작 교육의 제재 - 고전소설로 작품 짓기
4. 맺음말

<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의 교양 과목들을 살펴보면 인문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역사학, 문학과 관련된 과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양 과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융합적 인재 양성, 통섭, 창조성 등을 논할 때에 늘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인문 교양이면서도 그 실제적 교육의 면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인문교양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전문학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전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서 계승되어온 작품들이기에 우리의 사상, 미학, 생각과 생활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옛 문인, 사상가들이 정제된 문체와 논리적인 구성으로 깊이 있는 사상이나 문학적인 감수성을 다채롭게 표현해낸 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교육되지도 않은 채로 국문학과와 전공과목으로만 교육된다면, 우리의 고전문학은

* 이 연구는 홍익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더 이상 문학으로 감상되거나 후대로 계승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은 대체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기에 요점만 간단히 알고 있거나 그나마 알고 있는 작품의 종류나 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고전문학을 읽고 감상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현재적인 텍스트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에 인문교양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는 우리 문학의 전통과 통시성을 교육하는 방안을, 더 나아가 현대문학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창작을 교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인문교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실용적·도구적 의미에서의 글쓰기 강좌에서 한걸음 나아가 독서와 토론과 유사한 과목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목들의 독서의 대상으로 한국의 고전소설이 채택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에는 다양한 개성의 인물들이 등장하므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서사 내의 갈등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들이기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설에 형상화된 옛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은 현대문학이나 사회학, 신문방송학, 외국 문학 등의 교과목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전문학을 통해 말하기와 글쓰기 방식을 교육하는 방법은 글쓰기나 논술 교육, 문화콘텐츠 창작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 제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고전소설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활용된다면 인문교양교육이 정상화되어 대학생들이 다양한 지적 활동과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고전소설 읽기를 유도하여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세계화되어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승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는 전통적 문화 자산을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교육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고전소설 작품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전문학, 고전소설, 인문교양교육, 글쓰기교육, 주제론, 문화콘텐츠, 교육 제재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인문교양교육의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고전문학¹⁾의 활용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즉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를 논의하고, 나아가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양과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고전문학을 국어국문학과와 전공과목의 하나로만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그 다양한 현재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이 우리의 고전문학을 통해서 민족의 문학적 전통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한국 문화를 다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주제별로 연계하여 가르친다면 한국문학의 통시성도 체험할 것이며, 고전문학을 현대의 시·소설·영화·드라마 등으로 재창작하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생각해냄으로써 현재적인 가치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현재 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양교육’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및 표현력과 논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을 위해 우리의 ‘고전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은 옛 문인, 사상가들이 정제된 문체와 논리적인 구성으로 깊이 있는 사상이나 문학적인 감수성을 다채롭게 표현해낸 작품들이기에 교양 교육 제재로 적합하다. 이렇게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양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대학생들은 고전문학을 좀 더 친근하게 감상하고 이에 담긴 미학과 표현, 의식 세계 등에 정서적으로 감동하고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주제로 설정하여 고전문학과 현대문

1)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국의 고전문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 효과에 대해 논하는 1, 2장에서는 고전문학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3장에서는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논한다.

학을 연계하여 읽도록 한다든지, 현대 소설이나 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로 소개한다든지 하는 교육 방법을 통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고전문학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활용된다면, 인문 교양 교육이 정상화되어 대학생들이 다양한 지적 활동과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²⁾ 대학에서의 교양 과목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와는 다른 학문적 담론 체계를 학습하고 의사소통 능력 및 표현력을 길러 다양한 지적 활동을 하면서 전공 교육을 받기 위한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이 능동적인 지식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읽고 분석하고 감상함으로써 사회와 문화, 인간을 이해하고 언어 표현력과 미학을 체득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교양 과목 개설 방안을 검토하는 본 연구를 통해 인문 교양 교육이 정상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생들의 고전문학 읽기를 유도하여 고전문학에 대한 제한적인 독서와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세계화되어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는 우리의 전통적 문화 자산을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교육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고전문학 작품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2)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영미 문학연구회에서 2013년에 기획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 교양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인문학을 전공인문학에서 나아가 교양인문학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여기서는 방향성과 당위를 확인하는 데에서 그쳤지만, 필자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고전문학을 인문교양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려 하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에 비해 다소 소홀하게 연구되어 왔다. 2007년도에 몇 편의 논문이 기획되었는데³⁾, 이들은 주로 각 분야의 전공과목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논의였다.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을 짚은 연구,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을 제시한 연구,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으로 신화의 콘텐츠화에 관해 수업한 사례를 제시한 연구, 고전시가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이었다. 이후,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대학 교양 교육을 해보자는 논의들⁴⁾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그 분야에서 몇몇 작품을 활용하여 교양 과목 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국의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대학 교양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많지 않다.⁵⁾

-
- 3)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6.; 권순공,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신화의 콘텐츠화”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최규수,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 4)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22집, 2010.; 신상필,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한국고전연구』22집, 2010.;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22집, 2010.;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2집, 2010.; 이수곤,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강좌의 한 예-‘이중자야’와 ‘금지된 사랑, 불륜’모티프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22집, 2010.; 강성숙,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한국고전연구』22집, 2010.
- 5) 한국의 고전문학이 독서 대상으로 선택된 경우가 간혹 있지만, <구운몽>, <열하일기>, <춘향전>, <삼국유사>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문학 중에서 특히 고전소설을 활용한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려 한다. 고전소설이 지닌 ‘문학 작품’으로서의 특성과 가치를 보다 흥미롭게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의 구조적 특성, 의의, 향유 방식, 주제 탐구 등을 교육의 내용으로 구조화할 것이다. 아울러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그 문학이 탄생된 시대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이해도 중요하므로 이 점도 염두에 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문학 수용자 즉 학생들이므로 그들이 고전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어떤 주제나 소재가 고전소설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찰한 뒤 현대문학에서는 어떻게 계승되거나 변화, 발전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옛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은 현대문학이나 사회학, 신문방송학, 외국 문학 등의 교과목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전문학을 통해 말하기와 글쓰기 방식을 교육하는 방법은 글쓰기나 논술 교육, 문화콘텐츠 창작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 제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 교양교육의 흐름과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대학의 교양교육은 본래적 의미의 인문교양 교육(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공과

토론, 『교양교육연구』5권 1호, 2011. 246쪽 참조) 현재의 교양교육에서 독서 대상이 서구의 고전으로만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양의 고전을 활용하자는 제안에서도 <삼국사기>, <동호문답>, <난중일기>, <목민심서> 등 산문이나 역사·사상서가 거론되었을 뿐 고전서사문학은 빠져 있다.(함정현·민현정,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활용에 대한 연구-한국·일본·미국 대학의 교양 고전교육 사례 비교』, 『동방학』30, 2014. 2. 483~509쪽 참조)

정에 진입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생으로서 갖추면 좋을 것이
라 생각되는 기초과목들을 제공하는 영역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즉 서구
의 고전적 교육 전통 중 문과에 해당하는 문법, 논리, 수사, 이과에 해당하
는 산수, 기하, 음악, 천문이 합해진 것으로, 정통 보편 학문이라 할 수 있
다. 이후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정신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문학, 역
사학, 철학, 과학 등을 기본으로 하며 이성적, 탈종교적인 방식으로 학문
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즉 분과학문이나 전문지식이 아
니라 일반지식과 보편적 이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바로 인문교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⁶⁾

좀 더 구체적으로 교양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명확하고 효과적
으로 사고하며 이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주와 사회와 인
간을 이해하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셋째, 다른 문화와 역사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 넷째, 윤리적·도덕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고찰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⁷⁾ 등
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 같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작문, 외국어, 수학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며, 글쓰기와 토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다.
즉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것이다.⁸⁾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어떤 대학에
서는 생물학이나 수학 같은 과목에서까지도 글쓰기를 강조하며 4학년 학
생은 전공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6) 조효제, 『유럽 대학의 교양교육』, 『안과 밖』3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3. 200~201쪽.

7) 하버드 대학의 학생 요강에 제시된 교양교육의 목적이다. 오길영, 『대학의 몰락과 교양교육-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안과 밖』3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3. 187쪽 참조.

8) 앞의 논문, 188쪽.

서구전통, 고전, 종교, 가치관 탐구 등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토론과 글 쓰기 수업을 중시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는 강의 수업에 비해 학생들이 더 많은 수업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지식을 기계적으로 주입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의 삶에 필요한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⁹⁾

유럽에서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이성과 비판 정신, 인본적 가치를 습득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학 교육의 근저에 깔려 있으며, ‘가득 찬 머리’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머리’를 양성해야겠다는 목표 하에 지혜 즉 판단력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 선에 이를 수 있는 양심의 함양 등을 지향하는 인문교양교육이 대학의 존재 의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⁰⁾

대학 교양교육의 위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유럽 등지에서도 인문 교양과와 전문 연구과가 팽팽히 맞섰듯이 우리의 대학에서도 미묘한 지점인 듯하다. 물론 각 전공과목의 교육을 통하여 소수정예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가 교육시키고 공적인 자원으로 키우는 제도도 필요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식의 진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도 타당하다.¹¹⁾ 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는 인간적인 가치를 체화한 ‘온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고전적 교양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대학 교양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시야, 통합적 구성력, 창조적 상상력, 탄실한 판단력의 자질을 갖춘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는 시민이 양성되어야만¹²⁾ 사회

9) 앞의 논문, 193~194쪽.

10) 조효제, 앞의 논문, 201쪽.

11) 앞의 논문, 204~207쪽.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양을 갖춘 온전한 인간을 양성하고, 전공 학문에 수월하게 진입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전자를 위한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과목들은 주로 중핵 교양과목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4년 중 어느 때에 수강해도 상관이 없다. 후자를 위한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과목들은 주로 필수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1학년 때에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인문교양교육은 전자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며, 이때에 한국의 고전소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침체에 빠진 일본을 되살릴 새로운 부국강병의 원리로 교양과 인문학을 호출했으며, 최근에는 성공한 잡스와 게이츠가 유동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21세기 경영학의 충실한 우군으로 인문학을 호출하고 있다.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간 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전체가 구성되어 있기도 할 만큼 인문학, 인문교양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¹³⁾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의 교양과목들을 살펴보면 인문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역사학, 문학과 관련된 과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양과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¹⁴⁾ 융합적

12) 송승철, 『인문대를 해체하라-전공인문학에서 교양인문학으로』, 『안과 밖』3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3. 153쪽.

13) 앞의 논문, 150쪽. 168~169쪽.

14)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독서와 토론 관련 과목들에서도 주로 서양의 고전문학이나 역사학, 철학 관련 서적들이 주요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양 서적에서 주로 다루는 텍스트 목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인문교양서적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출간하는 어떤 저자의 책 중에는 인간의 감정을 48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스피노자의 철학에 따라 명작들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 있다. 48권의 책이 설명되고 있지만, 한국의 문학 작품은 없다.

인재 양성, 통섭, 창조성 등을 논할 때에 늘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인문 교양이면서도 그 실제적 교육의 면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인문 교양 교육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전문학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전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서 계승되어온 작품들이기에 우리의 사상, 미학, 생각과 생활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교육되지도 않은 채로 국문학과와 전공과목으로만 개설된다면, 우리의 고전문학은 더 이상 문학으로 감상되거나 후대로 계승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은 대체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기에 요점만 간단히 알고 있거나 그나마 알고 있는 작품의 종류나 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¹⁵⁾, 대학생들이 한국고전문학을 읽고 감상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현재적인 텍스트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인문교양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는 우리 문학의 전통과 통시성을 교육하는 방안을, 더 나아가 현대문학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창작을 교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15) 최근의 논문 중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활용에 대한 연구-한국·일본·미국 대학의 교양 고전교육 사례 비교」(함정현·민현정, 『동방학』30, 2014. 2.)가 있으나, 여기서 다루는 한국 고전은 동호문답, 난중일기, 목민심서와 같은 산문 기록들이지 문학의 본령은 아니다. 또한 인문 교양 중심의 읽기·쓰기 연계 과목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역설한 논문(홍인숙, 「대학 글쓰기 심화과정에서 ‘인문 교양’ 중심의 읽기·쓰기 연계과목의 효과와 의의-이화여대 <명작명문의 읽기와 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51, 2012.)에서 주로 거론한 명작명문 읽기와 쓰기 과목의 읽기 텍스트 목록 21권 중에서도 한국 고전문학은 고전소설 <춘향전> 한 작품뿐이었다.

인문교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실용적·도구적 의미에서의 글쓰기 강좌에서 한걸음 나아가 독서와 토론과 유사한 과목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목들의 독서의 대상으로도 한국의 고전소설이 채택되었으면 한다. 고전소설에는 다양한 개성의 인물들이 등장하므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서사 내의 갈등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의 활용방안

1)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의 제재 - 고전소설 읽기와 글쓰기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쓰는 학문적 소통 능력 및 표현력을 함양하여 다양한 지적 활동과 전공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지식인이자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와는 다른 담론 체계를 학습하고 종합적인 지식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을 배양해야 하며, 다양한 텍스트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삶과 가치관, 의식 세계에 대해 고민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 필수 과목인 글쓰기 관련 강좌들이 거의 학생들이 학문공동체 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전공과목

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독서와 토론 관련 과목들도 부족 늘고 있는데 읽기와 말하기에 주력하다 보니 쓰기와는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나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한다면 자신의 문제의식과 내적 성찰을 토대로 하여 심화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에 용이할 것이다.¹⁶⁾ 고전문학을 글쓰기 이론과 실제에 활용해 보려는 연구가 한문학과 고전시가 분야에서 시도되었는데¹⁷⁾, 일각에서는 우리 고전을 글쓰기 교육의 도구나 자료 차원으로 머물게 해서 안 될 것이며 그 본질적 가치와 그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 문학성과 예술성을 이야기하고 쓰게 해야 한다¹⁸⁾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작품을 오독(誤讀)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르친 후에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자기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한 만한 고전문학 작품 중의 하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이다. 이들은 조선후기에 상당히 많은 독자를 확보했었고 세련된 소설 기법을 보여주었으며 옛 여성들의 생활과 문화, 의식 세계를 반영한 작품들이다. 길이가 길어서 수업 제재로 사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서구의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괴테나 셰익스피어의 작품,

16) 몇몇 대학의 예를 본다면, 서울대의 '고전읽기 강화교육', 연세대와 중앙대, 동덕여대, 영남대의 '독서와 토론', 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토론', 동국대의 '고전세미나' 등이 있다.(홍인숙, 앞의 논문, 167쪽 참조) 2014년부터 이화여대에서는 2학년 필수교양과목으로 '고전 읽기와 글쓰기'를 개설하여 심화된 글 읽기와 쓰기를 유도하고 있다.

17) 김철범,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 『작문연구』 1집, 2005. ;강혜선, 「조선후기 소품문과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 5집, 2007. ;심경호, 「한문산문 수사법과 현대적 글쓰기」, 『작문연구』 5집, 2007. ;박수밀, 「<상기(象記)>에 나타난 박지원의 글쓰기 전략」, 『국어교육』 122집, 2007. ;박경남, 「김창협(金昌協)의 산문 비평을 통해 본 글쓰기 방법론」, 『국문학연구』 21호, 2010. ;조희정, 「고전시가를 활용한 투사적 글쓰기 방법 연구-<오우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8호, 2009.

18) 윤승준, 「우리 고전을 읽고 쓴다는 것」, 『대학작문』 3집, 2012.

<제인에어>나 <오만과 편견>, <어린 왕자> 등을 강독하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편소설 <소현성록> 본전(本傳)¹⁹⁾을 강독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이 작품에는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이 소상하게 들어 있어 학생들이 실감나게 당대의 생활문화를 알 수 있고, 가족 내의 인간관계 설정과 묘사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가족 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작품 내에서의 팽팽한 긴장을 이완시키고 인물 간의 화해와 교류를 유도하는 놀이와 여가문화를 통해 서사 진행의 완숙미도 감상할 수 있다.²⁰⁾ 또한 작품 속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나 위상이 흔들려서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에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려 하는데, 이때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비슷한 경우로 괴로워하는 상대를 위로하기도 한다. 이런 대목을 함께 읽은 뒤에 학생들도 자신의 생애 중 가장 힘들었던 때나 보람 있었던 때, 슬펐던 때 등을 말하게 한다. 그런 뒤 자기소개서의 일부에 반영하여 쓰게 한다든지 자서전을 써보게 한다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기성찰적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편소설의 여성 인물들 중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남편, 시아버지, 어머니, 유모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자신의 의지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한다. 질문에 답하고 재질문에 반박하는 등의 심도 있는 논쟁 장면들²¹⁾을 읽은 뒤 그 논리 전개 양상을 정리하고 찬반 양론에 대한 토의

19) <소현성록> 원전은 총 15권으로 되어 있으며 1권에서 4권까지가 본전(本傳), 5권에서 15권까지가 별전(別傳)이다. 원문 입력본과 현대역이 출간되어 있는데 본전은 단행본 1권으로 되어 있으니 수업의 제재로 사용하기에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20)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집, 2010.

21) 예를 들어,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의 아내인 임씨가 시아버지인 소현성과 네 차례의 문답을 통해 시아버지가 탄복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다. 순종해야 할 대상인 남편

를 한 뒤 이에 대한 최종 의견에 대해 글을 써보라고 할 수 있다.²²⁾

한문소설 <운영전>도 대학생들이 함께 읽고 토의하기에 적절한 교육 제재이다. 인생을 건 사랑,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장벽,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슬픈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어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끌어내기에 적합하다. 또한 운영을 돕고자 각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열 명의 궁녀들의 논리와 기지, 찬반이 팽팽한 사랑론, 고전소설사상 최초의 악인 캐릭터라 할 수 있는 특이라는 인물의 의의 등에 대해 토의하고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열 명의 궁녀들이 지어 읊조리는 한시(漢詩)들처럼 학생들도 한시 다시 써보기를 하면 흥미로울 것이다. 특히 안평대군(1418-1453)이 운영의 사랑과 자유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한 명보다는 중세적 지배체제 전체를 악역으로 부각하는 작품이다.²³⁾ 작품 내에서의 그의 위상과 사랑의 관계 내에서의

이 만약 잘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람직한 아내의 태도는 평상시에 는 유순하고 온화하게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남편이 행동을 잘못했을 때에는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것임을 말하거나, 어느 정도가 검소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적절한 정도를 들어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대목 등이다. <소현성록> 9권 89~91쪽. 자세한 것은 정선희,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을 참고하기 바람.

22) 이상을 토대로 하여, **교양과목으로 “고전소설(소현성록) 읽기와 글쓰기(가칭)”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주차별 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주 : 강의 내용과 방향 소개

2주 : 한국고전소설사와 <소현성록>의 위상

3주 ~ 5주 : <소현성록> 읽기

6주 : <소현성록>으로 조선의 사회와 문화, 정치 읽어내기과 토의

7주 : <소현성록>으로 조선의 남녀상과 인간관계 읽어내기과 토의

8주 : 중간고사

9주 : 글쓰기의 방법1 묘사 - 인물 선택하여 외모, 성격 묘사하기

글쓰기의 방법2 서사 - 인물 선택하여 일대기 쓰기, 사건 선택하여 서사문 쓰기

10주 : 글쓰기의 방법3 분류 - 선인/악인, 주동인물/조력자, 주인공/적대자 등으로 분류해 특징 쓰기

위치, 악역인가 아닌가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의 의의 중 하나는 소설사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에 여성서술자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애정전기소설의 전통에서 이질적이지만, 고백 형식을 통해 여성의 내밀한 내면을 잘 드러내었고 그녀의 고민과 소망을 전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도 자신의 내면세계와 그 변화의 추이를 담은 서사체를 써본다든지 주인공의 은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작가가 서

글쓰기의 방법4 비교 - 남주인공 비교(현성/운성, 운경/운성), 여주인공 비교(화부인/석부인)

- 11주 : 글쓰기의 실제1 자기소개서 - 인물의 자기표현 양상, 생애 정리하기
자신의 자기소개서 쓰기
 - 12주 : 글쓰기의 실제2 설명문 - 소설의 공간적 배경, 역사적 배경 설명하기
소설에서 생소했던 단어를 하나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 13주 : 글쓰기의 실제3 논증문 - 소설에서 인물 간 논쟁 장면 정리하기
논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는 글쓰기
 - 14주 : 글쓰기의 실제4 문화비평문 - 소설 속 문화, 사회 현상 추출하여 더 알아보기
문화, 사회 현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평하는 글쓰기
 - 15주 : 고전소설 읽기를 통한 글쓰기의 효과와 의의 총평
- 23) 안평은 불행한 삶을 살았던 대군으로 계유정난 때에 죽임을 당했고 아들도 처형되고 처첩들은 관비가 되었다. 작품 속에서 그는 여성의 재주를 인정하는 개방적 사유의 소유자였고 궁녀들에게 은애와 자애를 베푸는 교육자였다. 하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궁녀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절대권력자의 모습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군주의 모습은 상식적인 것이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영이나 궁녀들은 자신들을 가두어 기르는 것으로 인식하여 불행해하게 된다. 대군이 윤영을 은근히 사랑하지만 윤영은 대군의 부인의 은혜를 이유로 거절하고 대군도 그녀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니 사랑만 놓고 보면 가여운 사람이고 슬프고 허둥대는 패배자라고도 할 수 있다. 대군은 윤영이 김진사와 사랑한다는 걸 알고도 목숨 구해주고 시에 상도 주는 파격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의 금은보화가 궁궐 밖으로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화를 내고 혼도 내려 한다. 결국 작가는 궁녀 은섭과 자란 등의 목소리에, 남녀에게는 모두 정욕이 있다, 윤영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그녀들의 말에 대군은 그들을 풀어주고 윤영만 가두어둔다. 그러나 윤영은 더 이상 자유가 없는 삶을 살기 싫어서 그리고 지인들에게 미안해서 자결을 하고 만다.

술자의 내면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그 진실성에 감동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단계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요컨대, 고전소설을 학생들이 정독하게 한 뒤, 인상 깊었던 구절, 자신에게 문제를 던지거나 감동을 주었던 구절이나 장면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하고 이를 다듬어 글을 쓰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미적 취향이나 정치적 견해, 인생관, 가치관까지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문학의 전통과 통시성 교육의 제재 - 고전소설로 삶 읽기

고전소설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전통과 통시성을 교육하는 일은 주제별로 접근할 수 있다. 고전문학에 나타난 자연, 교육, 가족, 사랑, 놀이 등에 관심이 있다면 이에 대해 먼저 다루고 현대문학에서는 같은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문학 주제론-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²⁴⁾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기형적 탄생, 금기와 수행, 변신, 악(惡), 거울, 수수께끼, 꿈, 몸, 길, 술, 죽음, 금전, 집, 동물 등의 주제별로 그 문학적 연원을 찾아보고 현대문학에서의 형상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고전서사문학은 신화와 설화, 춘향전과 흥부전 등 극히 제한된 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아쉽다.

한편, 최근에 여성과 관련된 주제어별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사전』^{1~5권}²⁵⁾을 참고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폭넓게 고전문학 작품이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유의미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택하여 교육의 제재로 삼는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간’ 분야의 주제어들을 살펴본다면, 고전소설을 비롯한 고전

24) 이재선, 서강대 출판부, 2009. 재판.

25) 김미현·최재남·정선희외, 보고서, 2013.

문학에서는 여성을 가두고 억압하는 집과 방이라는 공간이 두드러졌지만 그곳이 또한 여성을 교육하고 쉬게 하기도 하는 이중적 공간이었음이 드러난다. 중당이라는 곳에서는 소통이 가능했지만 여성에게는 막히고 답답한 방의 의미가 컸고, 애인이나 남편이 함께 있지 않기에 그리움만 깊어 가게 한 소외의 공간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옛 기억을 환기시켜 정서가 충만하게 하거나 여성들끼리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마당이나, 그리운 친정집 등은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편, 현대문학에서는 새장, 늪처럼 답답한 집에서부터 감옥 같은 부엌, 가출 환상을 자아내는 마당 등 부정적인 면의 가정내 공간이 부각된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깨어나 성장하게 하는 나만의 방이나 자족하게 하는 부엌 등 긍정적인 면도 보여주는 점 등²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간·관계’ 분야의 ‘아버지’ 관련 주제어들을 본다면, 고전문학에서는 딸의 교육자, 애정과 부정의 발현·신성한 상징 등이 추출되었지만 현대문학에서는 폐덕(悖德)과 무정(無情), 증오와 연민의 모순된 이름, 유전(遺傳) 혹은 콤플렉스의 기원, 불량 아빠와 백치 아버 등이 추출되었다. 특히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딸을 대견해하고 북돋우면서 교육하는 따뜻한 면, 애정으로 감싸주거나 예뻐하면서 살가운 정을 보이는 면을 보였다. 하지만 현대문학으로 오면, 딸에게 아버지는 무정하고 부도덕하거나 불량하여 딸이 아버지를 증오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근원이자 기원이므로 인정해야만 하는 존재, 연민을 일으키는 존재로 형상화됨을 알 수 있다.²⁷⁾ 이렇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면서도 고전과 현대 문학의 통시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26) 정선희,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의 체제와 내용 - 고전소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2012. 6. 420~421쪽.

27) 김미현외, 앞의 책, 1권 76~113쪽. ; 앞의 논문, 394~395쪽.

에 좋은 주제별 접근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숙영낭자전〉 같은 19세기 후반의 애정소설을 통해서서는 당대인들의 애정관, 부부관, 부자관, 세계관과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분위기, 전통적인 혼례나 제례 등에 대해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본 〈운영전〉과 함께 〈주생전〉을 더 읽을 수 있다. 〈주생전〉은 17세기의 한문 소설로, 우리 고전소설 중 최초로 삼각관계의 비극을 담았기에 사랑으로 인한 아픔과 감정 중독, 절대적 사랑의 가벼움, 사랑의 파탄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까지 읽어낼 수 있어²⁸⁾ 현대 애정서사물들로 이어지는 통시적 맥락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가족’에 대해 논의한다면, 〈심청전〉·〈장화홍련전〉 등을 통해 효심과 부녀 관계를, 〈홍길동전〉과 〈사씨남정기〉 등을 통해 부부 관계와 가문 계승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계월전〉이나 〈방한립전〉 등을 비롯하여 여성 영웅의 서사적 전통을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여성 영웅이라는 말을 무용(武勇)이나 출장입상(出將入相)과 같은 외적인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자아성취라는 내적인 자족성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파악²⁹⁾한다면 요즘의 학생들에게 거리감이나 반감을 주지 않고 논할 수 있을 듯하다. 남성(남편)을 통해 대리적으로 드러나는 잠재적 능력 발휘나 자아성취가 조선후기의 소설 〈금방울전〉, 〈창선감의록〉 등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여성의 영웅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소설들도 출현한다. 출장입상이나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혹은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 남장(男裝)을 하여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다가 여성으로서의 정체가 드러나 혼인한 뒤 다시 여

28) 김수연, 『〈주생전〉의 사랑과 치유적 독법』, 『문학치료연구』 29집, 2013. 41~68쪽.

29) 김용기, 『여성영웅의 서사적 전통과 고소설에서의 수용과 변모』, 『우리문학연구』 32집, 2011. 36쪽.

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서 나아가 자신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 남성적 삶을 지향하고 동성혼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작품 <방한립전>³⁰⁾도 있음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듯하다. 유교적 규범의 제도화와 정착이 여성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와 활동을 제한하던 조선후기의 모습이 현대의 학생들에게 낯설지도 모르지만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남녀차별적 요소들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이 요즘 느끼는 점들, 현대문학에서 읽었던 것들과 함께 비교하면 좋을 것이다.³¹⁾

3) 현대문학과 문화예술 작품 창작 교육의 제재 - 고전소설로 작품 짓기

대학의 학과 중에서 미술대학의 동양화과나 서양화과, 조소과, 미술사

30) 앞의 논문, 57~61쪽.

31) 이상을 토대로 한다면, **교양과목으로 “고전소설로 삶 읽기(가칭)”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주차별 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겠다.

1주 : 고전소설과 삶 : 주제로 읽는 고전소설

2주 ~ 4주 : 사랑 - <만복사저포기> 나를 알아준다면 귀신이라도 괜찮아.

<주생전> 증독된 사랑, 그러나 변하는 사랑.

<운영전> 그 무엇도 사랑을 막을 수 없어.

5주 ~ 7주 : 가족 - <사씨남정기> 가문의 계승이 제일 중요해.

<심청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최고운전> 특별한 탄생, 부모도 두려워하는 아이.

8주 : 중간고사

9주 ~ 11주 : 전쟁 - <김영철전>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 백성.

<박씨전> 통쾌하게 한바탕 꿈처럼.

<강도몽유록> 우린 억울해. 잘못된是你们이 해놓고.

12주 ~ 14주 : 남녀 - <숙향전> 전생의 연분대로 그를 찾아.

<오유란전> 남자의 가식, 내가 벗기겠어.

<홍계월전> 남자보다 뛰어난 여장부.

15주 : 기말고사

학과, 예술학과 등의 학생들도 우리 고전문학을 좀 더 잘 안다면 우리 전통과 미학, 생활, 의식세계 등에 대해 더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창작활동을 할 때에도 이를 소재로 하여 참신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옛 선인들도 당대의 대표 작품들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좋아 하였기에, <구운몽도> 같은 것이 수십 편 남아 있다. 서양에서는 그 나라의 고전문학이나 신화의 내용으로 미술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문학과와 고전소설 전공 교수가 현대문학이나 문화 예술 창작 분야를 직접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고전소설을 폭넓게 소개하여 타과의 대학생들이 알게 한다면 다양한 작품을 생산해 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²⁾

실제 수업에서, 고전소설 중 흥미로운 서사를 지녔거나 다양한 갈등과 삶의 굴곡을 겪는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들을 소개한 뒤에 이를 현대소설이나 시로 창작하거나 그림이나 조각 등 예술 작품을 만드는 안을 기획하게 할 수 있다. ‘다모’라는 특수직 여성에 관한 기록들을 소재로 하여 조선 후기의 문인(文人) 송지양이 <다모전(茶母傳)>을 지었듯 이런 기록들을 소재로 하여 퓨전 사극 <다모>가 만들어졌고³³⁾, 제주도에 살았다는 여성

32) 이에 대해 권순균 교수도 제안한 바 있다. 고전소설과 디지털 서사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을 고전서사와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고전소설의 환상성과 비현실성의 효용성을 현대소설에서 불가능했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자고 하였다. 또한 이를 디지털 서사와 연결하여 콘텐츠화하는 원천으로 활용하자고 하였다. 또 영화와 관련하여, 고전소설과 영화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고전소설이 영화화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두 장르가 연계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모색해 보자고 하였다.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 참조.

33) 원천소재가 된 이야기들은 실록 등에 기록되어 있거나 구전되어 왔을 터이며, 조선후기에는 한문소설로도 지어졌다. 현대의 작가들이 이를 실마리로 하여 14부작의 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고 다모 폐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에서, 고전서사의 현대물화에 좀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상인 김만덕에 관한 기록들을 소재로 하여 채재공이 <만덕전(萬德傳)>을 지었듯 이런 기록들을 소재로 하여 사극 <거상 김만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정조 시대의 문인 이덕무가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살인 사건과 재판과정을 소설화한 한문소설 <은애전>은 이웃 할미의 근거 없는 모함과 유언비어로 고통 받던 18세의 여성 은애가 할미를 열여덟 군데나 찢러 죽인 이야기이다. 끔찍한 살인이지만, 그 내막을 들은 관리나 임금이 이는 모함에 대한 복수이니 용서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의협(義俠)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현대에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비방과 언어폭력이 상대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법과 도덕이나 양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당방위나 인지상정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등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이기에 현대소설이나 영화로 기획하면 적절할 듯하다. 이덕무가 지은 또 한 편의 한문소설 <김신부부전>은 노처녀와 노총각을 혼인시키는 이야기이므로 코믹로맨스로 재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이옥이라는 문인의 <이홍전>은 희대의 사기꾼 이홍이 도도한 기생 부녀를 속이고 아전과 스님을 속인 이야기인데 서민을 수탈하거나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는 부류들을 통쾌하게 골려주는 이야기, 서로 속고 속이는 못 믿을 세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문소설들은 작가들이 당대에 중요하게 부각되던 사회 문제들이나 인구에 회자되던 특이한 사람들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의도를 담아 지었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다룰 수가 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들도 있는데, <강도몽유록>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에서 자결하거나 자결이 종용되어 죽은 여성들에 관한 소설이다. 강화도로 피난 가서 죽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말하면서 남편과 아

들, 시아버지, 통치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가정과 사회, 국가의 여러 문제점들을 추가하고 복합하여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각 여성들마다 한 장면의 주인공을 맡을 수 있으므로 유니버시식 영화나 뮤지컬, 연극 등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영철전>도 전쟁으로 인해 일생 내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불행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개인과 가족과 국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 등을 성찰하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현대문학이나 영화로 재창작하면 좋을 듯하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연한 행운과 은인과의 만남 등으로 다시 구출되곤 하는 상황을 현대의 독자나 관람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서사를 변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등을 토의한 뒤 재창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부식이 지은 <온달전>은 인물들 간의 갈등과 대립 구도가 중층적이어서 그 얽혀 있는 관계들을 잘 살리면 흥미로운 서사가 될 것이다. 이들의 대립을 각각의 퀘스트로 만들어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제작한다든지, 공주가 온달을 교화하고 성장시키는 점을 부각하여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문소설들은 전쟁이나 사랑, 살인 사건과 소송, 득도와 수련 등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사와 인물들을 담고 있기에 이들을 원천소재로 하여 현대의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교육의 제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고전소설의 대표작 <구운몽>은 이미 최근에 게임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후기에도 <옥련몽>, <옥루몽> 등 패러디 소설로 지어졌을 만큼 서사가 풍부하고 흥미를 끌기에 현대소설이나 문화예술 작품으로 활용하기에 좋을 듯하다. 여성 인물인 강남홍과 벽성선

34) 정선희, 『문화콘텐츠 원천소재로서의 고전서사문학-〈삼국유사〉와 한문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0집, 2014. 3. 참조

등은 개성이 강하고 매력적이기에 이 부분만 분리하여 독립된 작품이나 예술품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고전소설을 캐릭터별로 정리해 놓은 책을 참고로 하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구운몽>의 양소유를 다정다감한 꽃미남으로, <사씨남정기>의 사씨를 치밀한 가문 경영자로,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을 자아찾기라는 험난한 여정을 곳곳하게 밟아가는 자존심센 여성으로, <오유란전>의 오유란을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잘 파악해 유혹하는 대담하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설명해 놓았다.³⁵⁾ 학생들이 이 소설들을 읽고 가장 주목하거나 공감한 인물을 선택하여 그를 중심으로 제목을 다시 붙여보고 작품을 재구성하여 현대물로 창작하게 할 수 있을 듯하다.³⁶⁾

35) 서대석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4권, 휴머니스트, 2008.

36) 이상을 토대로 한다면, **교양과목으로 “고전소설로 작품 짓기(가칭)”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주차별 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겠다.

- 1주 : 강의 내용과 방향 소개
- 2주 : 고전소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창작의 필요성과 의의
- 3주 : 고전소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관
- 4주 : 문화콘텐츠 기획과 주제 설정의 방법
- 5주 : 자료 수집과 기획서 쓰기
- 6주 : 스토리와 표현방식 구상하기
- 7주 :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 구상하기
- 8주 : 중간고사
- 9주 :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읽기와 예정 환타지물 기획하기
- 10주 : <최척전>, <육미당기> 읽기와 여행서사 기획하기
- 11주 : 강남홍, 만덕 읽기와 여성호걸 주인공 서사 기획하기
- 12주 : <운영전>, <강도몽유록> 읽기와 다수 여주인공 옴니버스식 서사 기획하기
- 13주 : 가정·가문 소설 읽기와 가족서사 기획하기
- 14주 : 연암 소설 읽기와 사회풍자물 기획하기
- 15주 : 강의 총평

4.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대학에서의 인문 교양교육의 흐름과 그 중요성을 파악한 뒤, 현재 우리 대학들에서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 사고의 확장, 읽기와 쓰기 능력 함양, 한국문학의 전통 계승, 문화예술 작품 창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전소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전소설을 포함한 고전문학은 옛 문인과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수성을 정제된 문체와 논리적인 구성으로 다채롭게 표현해낸 작품들이기에 그 내용과 표현의 면에서 교양교육의 제재로 적합하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서 계승되어온 작품들이기에 우리의 사상과 미학, 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지 못한 채로 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전공과목의 하나로만 교육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고전문학은 더 이상 문학으로 감상되거나 계승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은 대체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기에 작품에 대한 요약적 지식만 전수되었을 뿐이고 그나마 알고 있는 작품의 종류나 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고전문학을 읽고 감상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현재적인 텍스트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이에 인문교양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고, 다음으로는 우리 문학의 전통과 통시성을 교육하면서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나아가 현대문학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창작을 교

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인문교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실용적·도구적 의미에서의 글쓰기 교육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독서와 토론과 유사한 과목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목들의 독서의 대상으로도 한국의 고전소설들이 채택되었으면 한다. 고전소설에는 다양한 개성의 인물들이 등장하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서사 내의 갈등 양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의 다양한 작품들을 읽고 분석하고 감상함으로써 사회와 문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언어 표현력과 미학을 체득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교양 과목들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본 연구를 통해 인문 교양 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간혹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여전히 한국의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대학 교양 과목을 진행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세계화될수록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욱 확고히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기에 고전문학의 교양교육 제재로의 활용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전문학을 교양교육의 제재로 활용할 때에는 고전문학 고유의 문학과 예술성, 그에 담긴 통찰력과 시대상 등을 먼저 충분히 가르친 후에 정확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후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화, 「미래사회와 고전시가 교육-향가 교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5호, 2008, 405~426쪽.
-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 27~58쪽.
- 김대행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2008, 1~481쪽.
- 김미현·최재남·정선희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 1~5권, 보고서. 2013, 각 1~400쪽 내외.
- 김수연, 「〈주생전〉의 사랑과 치유적 독법」, 『문학치료연구』 29집, 2013, 41~68쪽.
- 김순임외, 「대학 교양교육의 흐름과 발전방안-전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권 1호, 2013, 11~39쪽.
- 김용기, 「여성영웅의 서사적 전통과 고소설에서의 수용과 변모」, 『우리문학연구』 32집, 2011, 33~74쪽.
- 김종철, 「고전소설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고소설학회편,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출판, 2007, 9~27쪽.
-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5권 1호, 2011, 229~261쪽.
- 남정희, 「동양고전과 대학 글쓰기의 만남」, 『대학작문』 3, 2011, 7~36쪽.
- 서대석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4권, 휴머니스트, 2008, 각 1~350쪽 내외.
- 서유경, 「고전문학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 123집, 2007, 131~157쪽.
- 송승철, 「인문대를 해체하라-전공인문학에서 교양인문학으로」, 『안과 밖』 3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3, 148~178쪽.
-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 - “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 59~87쪽.
- 신재홍, 『고전소설과 삶의 문제』, 역락, 2012, 13~450쪽.
- 오길영, 「대학의 몰락과 교양교육-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안과 밖』 3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3, 177~199쪽.
- 유강하, 「인문학 고전의 대화적 해석과 소통-“인문학 고전 읽기와 토론”수업을 예로」, 『중어중문학』 54집, 2013, 129~150쪽.
- 윤승준, 「우리 고전을 읽고 쓴다는 것」, 『대학작문』 3집, 2012, 37~54쪽.

- 이병찬, 「고전소설 교육의 전제와 실제-〈구운몽〉과 〈춘향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7집, 2009, 281~310쪽.
- 이상익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2007, 11~919쪽.
- 이숙정의,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권 2호, 2012, 11~42쪽.
- 이재선의, 『한국문학 주제론-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서강대 출판부, 2009 재판, 8~607쪽.
- 이황직,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토론’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6호, 2011, 517~548쪽.
- 임치균, 「고전소설의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방안」, 한국고소설학회편,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출판, 2007, 65~86쪽.
-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 131~157쪽.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생활문화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집, 2010, 83~121쪽.
- _____,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의 체제와 내용 - 고전소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2012, 387~430쪽.
- _____,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집, 2013, 173~212쪽.
- _____, 「문화콘텐츠 원천소재로서의 고전서사문학-〈삼국유사〉와 한문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0집, 2014, 191~215쪽.
- 정인모외, 「고전읽기를 활용한 수업모형」, 『교양교육연구』 7권 1호, 2013, 41~74쪽.
- 전성운, 「〈구운몽〉의 서사전략과 텍스트 읽기」, 『문학교육학』 17호, 2005, 99~125쪽.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집, 2010, 55~82쪽.
- 조효제, 「유럽 대학의 교양교육」, 『안과 밖』 3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3, 198~215쪽.
- 한래희, 「대학 교양 고전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 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0호, 2013, 383~423쪽.

함정현·민현정,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활용에 대한 연구-한국·일본·미국 대학의 교양 고전교육 사례 비교」, 『동방학』 30, 2014, 483~509쪽.

황혜진, 「고전서사를 활용한 창작교육의 가능성 탐색-〈수삼석남〉의 소설화 자료를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27집, 2009, 79~105쪽.

홍인숙, 「대학 글쓰기 심화과정에서 '인문 교양' 중심의 읽기·쓰기 연계과목의 효과와 의의-이화여대 <명작명문의 읽기와 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1, 2012, 163~188쪽.

ABSTRACT

The role and meaning of classical korean novels
as a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y
- focusing on the use of classical korean novels

Jeung, Sun-hee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is considering actual condition of human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y and suggesting using classical korean novels as solutions for its problems. That is, to discuss the role and meaning of classical korean novels as a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y and to develop liberal arts that use classical korean novels. It is also to diverge from indicating classical korean novel just as one of major subjects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o consider ways to educate its various present values.

I hope university students to understand literary tradition and identity of ethnic and to view korean culture variously through classical korean novel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actively use classical korean novels for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education, which is for cultivation of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expression and the ability to reason. It is because classical korean novels are works that ancient writers and philosophers variously express thoughtful thoughts and literary sensitivity by a refined style and logical organization. Furthermore, with education that thematically connect classical korean novels and modern novels, students can diachronically experience korean literature, and by conceiving ideas and ways of remaking classical korean novels into modern poets, novels, movies and dramas, they can realize its contemporary values.

The thesis of this manuscript is essential for invigoration and normalization of 'general education' that can help students expand liberal art knowledge and thinking, and will help set a foundation that students can do various mental and academic activities.

Key Words

general education, human liberal arts, classical korean literature,
classical korean novels, expression, the ability to reason, thematics,
creation

논문투고일 : 2014. 10. 18

심사완료일 : 2014. 11. 24

게재확정일 : 2014. 12. 3